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13 Summer

Vol. **77**

# 희망미소

[www.kclf.org](http://www.kclf.org)





구한서

동양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의 문턱입니다. 벌써부터 햇볕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맘껏 누리지 못할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푸념도 사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는 소아암과 당당히 싸워 이겨낸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듬직한 대학생이 된 학생도 있었고, 아직 지독한 병마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앓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을 함께해 온 어머니들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동양생명은 이러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지난 해부터 치료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전 임직원의 뜻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퍼뜨리는 수호천사가 되려고 합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소아암과 힘겹게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언제나 희망이 되고 있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양생명 역시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술아, 그 희망을 품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렴!

오늘도 놀이터 그늘에 섭니다. 봄을 느낄 새도 없이 여름에 들어선 더운 날씨, 미끄럼틀 위의 술이 웃음은 파란 하늘만큼 눈부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여느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이런 평범함이 우리에게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마운 일인지 알게 해줬던 술이의 발병. 어느 날부터인가 술이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코피를 흘리면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혈인가. 왜 그렇지?' 라는 의구심을 가진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병원에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골수검사로 진단은 현실이 되었고, 그 때부터 긴 병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튼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만 봐도 울던 술이가 어느새 인가 저보다 더 병원생활에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병원 학교로 쪼르르 달려가 놀면서 그 넘치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저녁이 되면 병원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비록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였지만, 아이는 여섯 살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았지만, 다섯 식구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이 자신의 탓인양,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쏟아 내었던 술이 아빠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데려가 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정성 덕분에 었는지 지금은 남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아픈 아이라는 것을 모를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조심스럽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입학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어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아이를 위해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재단의 학습지원을 받아 한글공부도 부지런히 시켰습니다. 알림장만 잘 써오면 된다고 세뇌(?)를 시켰는데, 아이는 의외로 받아쓰기도 척척 잘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5월 운동회 때, 한복을 입고 꼭두각시 무용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에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2년 전의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면 지금의 하루하루는 감사와 행복의 날들입니다. 가족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주위의 고마운 분들의 배려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1년의 치료가 남아있지만 사랑의 힘으로 술이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술아, 그 희망을 품고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랄게. 술아 사랑한다!



\* 술이는 2011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입니다. \*

#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서울아산병원 신혜란 전문간호사

## 소아암 어린이 보호자를 위한 관리용 어플리케이션

### 소아암수첩



'소아암 수첩'은 보호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료 및 투약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치료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지금까지의 치료 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암 상식은 물론 치료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 향후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 아루미와 함께 하는 소아암 알기



'아루미와 함께하는 소아암 알기'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이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능성 게임을 비롯해 암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캐릭터 '아루미'가 진단부터 치료, 퇴원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아이패드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소아암 정보 :** 본 재단에서 발간한 소책자 21종을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소아암 교실 :**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아암 관련 정보 제공 홈페이지(<http://www.kclf2.org>)입니다.

**간병수첩 희망미소 :** 소아암 치료 과정을 수기로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수첩입니다.

## 프리다 칼로

Frida khalo, 1907 ~ 1954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멕시코 출신 여류 화가입니다. 짧았지만 극적인 그녀의 삶은 멕시코 시티의 '블루하우스'라는 집에서 시작되고, 마감되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사진작가였던 독일인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척추이분열 증이었던 프리다 칼로는 6살에 소아마비까지 앓게 되면서 척추와 다리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길고 화려한 치마로 장애를 감추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면서 쇠로 된 손잡이가 몸을 관통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깁스를 한 채, 3개월의 긴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도 35번 이상의 수술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했던 그녀를 위해 아버지는 누워서 볼 수 있는 작은 거울과 이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가 유일하게 모델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모습에 상상력을 더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작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벽화 부문의 세계적 거장인 디에고 리베라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그는 그녀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디에고는 예술적, 사상적 지주 역할을 하며 그녀의 최후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밝은 색감과 극적인 상징주의, 원시적인 스타일의 조화로 구성된 그녀의 작품은 고전적이며 종교적인 멕시코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 프레임(The Frame)' 이라는 그녀의 작품은 20세기 화가로는 처음



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화가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중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한시도 프리다 칼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괴저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었고, 47살이 되던 해에 폐동맥색전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록 신체적 고통의 노예로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프리다 칼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불행과 용감히 싸우며 세기 최고의 여류 화가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어떤 어려운 암흑 같은 상황 속에도 자기의 빛을 찾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으며, 그 희망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글/그림 이지희 작가

## 소아암 어린이들의 희망을 안고 달리는 남자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인 노대섭 후원자는 일주일에 한 번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서 달립니다.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 내 평생에 남을 만한 사건, 골수기증!

2005년 우연히 들린 현철의 집에서 '골수이식'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잊어갈 즈음 어느 날, 제 골수와 일치하는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소아암으로 힘들어 하는 5살 꼬마아이에게 제 골수를 기증했습니다.

이식하던 날 아침,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골수기증은 제 평생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 지친 직장생활 속에서의 활력소, 마라톤!

직장생활에 지쳐 살다 보니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은 제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날이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마라톤 동호회나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티셔츠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재단과 소아암 어린이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뛰는 것은

저는 뛰다 지칠 때마다 제 가슴에 새겨진 소아암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뛰는 것이 이제 제게는 행복입니다. 아직은 혼자이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완치한 소아암 어린이들이 함께 달리게 되기를 항상 희망합니다.

###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인생은 이벤트다! 나를 위한 이벤트, 누군가를 위한 이벤트!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이 작은 이벤트가 '완치' 축제의 장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벤트에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 노대섭님은 2008년부터 재단의 정기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살을 빛내는 일과 마주하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멋진 사진들을 보며 '나도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시작된 호기심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아르바이트로 번 첫 월급을 몽땅 털어 카메라를 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겁도 없이 많은 돈을 함부로 쓴다고 어머니께 얼마나 혼났던지... 하지만 지금, 그때 일었던 호기심에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명하고 파란 하늘, 하얀 솜털 구름이 참 예쁘다는 걸, 사진을 찍으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매일 매일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고, 갈라진 보도블럭 사이로 자라나는 잡초 한 포기도 특별해집니다. 매번 그냥 무관심하게 스쳐가던 일상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진은 세상의 많은 것이 특별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진은 이전까지 평범했던 저를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일하던 후배가 '선배,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 하는데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응, 알았어.' 라고 답한 뒤 카메라를 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처음에는 몸이 아픈 친구들이라 표정이 어둡진 않을까 생각했지만 기우였습니다. 아이들은 힘든 치료에도 또래 친구들과 웃으며 장난치고, 같이 먹으며, 힘들고 답답한 병원생활을 어른보다 더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번 예쁘고, 씩씩한 아이들을 찍고 있습니다. 맛있게 음식 먹는 모습을 찍고, 게임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찍고, 생일 초를 입으로 후~ 불어 끄고는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찍고, 부모님과 함께 생일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진을 보며,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힘들었지만 함께했기에 행복했던 시간으로 추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한 자신을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고 자신을 빛내줄 어떤 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빛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후배는 가끔 '선배, 아이들 찍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인사를 해야 하는 건 후배가 아니라 저였네요.

\* 최경훈님은 2009년부터 사진 촬영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나를 단단하게 만든 용광로



허슬이

1993년생  
2002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2002년 12월 타인조혈모세포이식 후 치료 종결  
2013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재학

허슬이 완치자와의 인연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혈병 어린이들의 힘들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재단 홈페이지에 자원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라는 의구심을 갖고 전화통화를 하였고, 완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이후부터 허슬이 완치자는 학습지도 자원봉사를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생기발랄!'이었습니다. 대학생이자, 선생님이자, 자원봉사자이자, 완치자인 그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Q.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요?

A. 요즘요? 요즘은 재미있어요. 놀면서 공부하는 법을 터득했다거나 할까요? 입학했을 때는 생각과 다른 대학생활에 우울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그곳에 어떻게 도움을 줄지 기획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꽤 보람되고 재미있어요.

Q. 슬이씨를 보면, 정말 활기차 보여요. 지금의 20대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A. 제가 아직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해외여행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애를 많이 해 볼 거예요. 잠깐 연애를 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애가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지만, 20대 때 많이 해보고 싶네요.

Q.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데, 진로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A. 제가 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일을 좋아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생 때부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쳤거든요. 어릴 때, 막연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학과에 들어왔는데, 글세 바로 제 학년부터 교육학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제도가 없어진 거 있죠.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 제 전공에서 또 저의 적성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해요.

**Q. 슬이씨 성격은 좀 어떤가요?**

A. 저요? 저는 음... 내향적인 거 같아요.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런데, 저한테 또 다른 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제가 있어요. ^^ 중학교 때 영어캠프를 갔는데, 우연히 영어연극에서 주인공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고 나서 희열도 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 때 '아, 나한테 남들 앞에 나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알았어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언젠가 연극을 해보고 싶어요.

**Q. 우리가 병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슬이씨가 느끼는 '병원', 한 단어로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A. 어렵네요? 아, 그 느낌, 있어요. 막 뜨거운, 그래요, '용광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주 뜨겁고 힘든 그런 용광로, 그런데 그 용광로 속에서 가장 강한 철이 나오잖아요. 병원이 그런 용광로 같아요. 저를 단단하게 만든 용광로.

**Q. 어떻게 병원생활을 했는지 궁금해요.**

A. 그 때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기했던 때예요. 그 때 저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병원에서 이렇게 지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학습지를 과목별로 사달라고 했죠. 그리고는 병원에 있는 동안 나름의 생활계획표랑 공부 시간표를 짰어요. 그리고 그대로 생활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예체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시간표에 미술시간도 넣어서 시간이 되면 그림도 그렸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고, 병원 복도에 있는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아침에는 아이들이 다 자기 때문에 컴퓨터 차지하기가 수월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어, 수학, 한자, 사회 등 시간표대로 혼자 공부했어요. 대단하죠?^^ 그 때의 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왔던 거 같아요.

전 이식을 했는데, 그 때가 10살이어서 보호자랑 같이 이식 방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혼자 들어가서 이식을 했는데, 먹기 싫어도 약처럼 먹고, 약도 열심히 먹었어요. 먹으면 구토가 나왔는데, 약이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변기 속에 들어있는 약을 보며 잠깐 갈등하지요.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눈 딱 감고 다시 약을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고통은 잠시야, 난 꼭 이 병을 이기고 나가야 해, 그러려면 약을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억울해서라도 나아만 했어요.

**Q. 투병 중 부모님께 가장 속상했던 적은 언제였어요?**

A. 엄마는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아프다고 하거나, 먹기 싫다고 하거나 하면, 혼을 냈어요. 투정을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병원에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셨는데 말이지요. 엄마한테 혼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약도 더 먹고, 밥도 더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 몰래 우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때, 깨달았어요. 아, 엄마도 힘들구나. 엄마가 짜증나서 나를 혼낸 게 아니구나. 물론 짜증도 있었겠지만요. ^^;; 그죠?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만일 그 때 엄마의 우는 모습



을 보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의 그런 양육방법이 어찌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Q. 반대로 가장 고마웠던 적은 언제였어요?

A. 말해도 될까요? 좀 웃긴데, 저한테는 정말 절박했던 때, 고마웠던 일이 있어요. 들으면서 웃지 마세요. 제가 입원했을 때, 엄마도 몸이 좋지 않아 집근처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저 혼자 병원에 있고, 저녁에 아버지가 오셔서 간병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인가 낮에 너무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데, 나중에 엄마가 주변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병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대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아주머니 들한테 막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시켜준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먹겠다고 하면서, 엄마가 시켜줘야만 먹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아픈데 병원으로 오셔서 치킨을 시켜주셨어요. 그 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네요.

Q.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병원생활을 잘 하는 슬이씨의 비법이 있을까요?

A. 우선 밥 잘 챙겨 먹으세요. 그리고 오기가 필요해요. 꼭 낫겠다는 오기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 그리고 이게 요즘 말하는 스펙이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영웅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으며, 이 순간은 영웅을 만드는 잠시 지나가는 시련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Q. 슬이씨 인터뷰에 응해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인터뷰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는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그 때 이야기를 하니 새롭고, 또 뭔가 시원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때를 추억하지만, 마냥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지금도 눈물이 날만큼 힘든 기억이에요. 저에게나 우리 가족에게나요. 그래도 분명 저의 '특별한 경험'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 생각해요. 이야기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2시간 후, 길에서 우연히 슬이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슬이씨 학교 근처에 재단 쉼터가 있거든요.

(다다다다다다~!)

'어디 가세요?'

'아! 과외가 늦어서요. 담에 뵈게요.'

(다다다다다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힘차게 뛰어가는 슬이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 한사랑의집에서는

###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 현빈아 힘내!



서울 한사랑의집에 머물던 현빈이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게 되면, 무균실 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독한 항암치료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빈이를 위해, 한사랑의집 가족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벤트였을까요? 한사랑의집 옥상에 손수 만든 '현빈아! 힘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무균실 창문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그곳에 걸린 현빈이만을 위한 응원 메시지! 그 어떤 응원보다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추신: 현빈이는 무사히 조혈모세포이식을 마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10컬레의 운동화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각각 사이즈가 다른 10컬레의 신발! 신발의 주인공을 찾는다는 공지를 보고 우르르 몰려온 아이들은 긴장감 속에 제발 크기와 비슷한 신발을 골라 신어보았습니다. 탄성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홉 컬레의 신발이 주인을 찾아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컬레, 아직도 사무실에서 마지막 한 명의 신데렐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 집단 미술치료



갑작스런 진단과 힘든 치료생활로 인해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병원학교에서 집단미술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지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우정사업본부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 아가들 선물



신촌 한사랑의집에는 이제 제법 잘 뛰고, 말을 배우기 시작한 고만고만한 아가들 서너 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같이 노는 법을 몰라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아가들. 놀다가 때때로 누가 나타나면, 내복 바람으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몰려듭니다. 아! 너무 귀여워 꼭 껴붙어 주고픈데, 꼭 참아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아가들에게 꼭 맞는 선물이 한 보따리 들어옵니다. 뭐냐고요? ^^;; 훌리고, 묻힐 때, 그리고 용변 후, 아가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 물티슈요! 오랫동안 소아암 어린이들을 후원해 주고 있는 허영철 후원자분이 한가득 보내주었습니다. 꼭 맞는 시점에 꼭 필요한 아가들 선물, 서로 텔레파시가 통한 모양입니다.

>>> KCLF

지원 결정  
환아

2013. 3. ~ 2013. 5.

이식비

김동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내(다이아몬드블랙판반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1,5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현(생식세포종/국립암센터) 8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각 800만원

송○찬(골수성육종/세브란스병원)

전○호(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아산병원)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빈(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000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김○휘(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 1,000만원

(주)아이퀘스트

각 1,000만원

윤○혁(비스코트알드리지중후군/서울성모병원)

조○우(유잉육종/서울대학교병원)

(주)아놀자

조○준(뇌혈액순환장애/삼성서울병원) 1,000만원

(주)이베이코리아 옥션

각 2,000만원

임○늘(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

전○성(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아산병원)

정○윤(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

재활치료비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박○(급성골수성백혈병/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300만원

최○호(신경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 500만원

사법연수원 제43기 밴드 소울바이트

송○술(수모세포종/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113,525원

배우 송중기

최○환(수모세포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200만원

에이스종합건설

손○재(생식선종양/가천의대 길병원) 500만원

휴우케이블(주)

송○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400만원

해피빈

김○준(혈구탐식성조직구증/서울아산병원) 300만원

(주)드림팩토리클럽

각 500만원

이○준(상의세포종/삼성서울병원)

조○수(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치료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경(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400만원

김○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500만원

송○훈(급성아중표현형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800만원

이○담(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800만원

이○선(유잉육종/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정○우(뇌종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김○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11,673,974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강○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600만원

김○현(판코니빈혈/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500만원

임○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국립암센터) 1,500만원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성(골육종/경북대학교병원) 7,064,040원

에이스종합건설

김○민(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150만원

김○정(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2,581,060원

우정사업본부

각 300만원

김○윤(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노○혜(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박○진(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서울성모병원)

이○소(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재(랑게르한스조직구증/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울산한만공사

이○수(유잉육종/서울아산병원) 800만원

인보건설(주)

문○성(조직구증/화순전남대학교병원) 150만원

한국증권금융,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800만원

이○호(길랑바레중후군/화순전남대학교병원)

최○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주)옵스

서○영(랑게르한스조직구증/서울성모병원) 3,472,590원

(주)이베이코리아 옥션

이○주(황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주)효성 언양공장

김○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1,000만원(지정기탁)

**KB금융지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송○훈(급성미중표현형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800만원  
이○범(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5,780,860원

**2PM 이준호 팬클럽 누너긴**

송○찬(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3,817,400원(지정기탁)

**2012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왕○준(연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주)넥스**

이○호(길랑바레중후군/화순전남대학교병원)  
264만원(지정기탁)

**(주)이노션**

각 100만원

박○민(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서○영(랑게르한스조직구증식증/서울성모병원)  
정○(유잉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주)효성 언양공장**

박○준(시신경교종/해운대백병원) 600만원(지정기탁)

**2PM 이준호 팬클럽 누너긴**

송○찬(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100만원(지정기탁)

**익명 후원자**

박○규(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월 5만원(지정기탁)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가○스(카포시혈관내피종/세브란스병원)  
김○경(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박○미(랑게르한스조직구증식증/서울대학교병원)  
이○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최○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전북대학교병원)  
양○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  
원○주(방광암/국립암센터)  
정○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황○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대한승유관공사**

이○화(수모세포종/부산대학교병원)

**디자이너사이드 유아인갤러리**

김○진(생식세포종양/삼성서울병원)

**유비쿼스**

박○림(황문근육종/경북대학교병원)

**한전KPS(주) 신고리사업처**

장○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한전KPS(주) 고리제2사업소**

김○재(중증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

**허영철 개인후원자**

이○광(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주)태진인터내셔널**

김○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손○일(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LIG손해보험 새마음회**

권○현(골육종/경북대학교병원)

**익명 후원처**

기○육(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가발**

**하이모**

김○지(골육종/국립암센터)  
박○준(골육종/원자력병원)  
심○연(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이○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임○웅(원시신경외배엽종양/서울대학교병원)  
조○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해운대백병원)  
최○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AJ렌터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리(간세포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김○연(황문근육종/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박○연(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박○준(급성골수성백혈병/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KB국민은행**

김○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나○영(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박○현(유잉육종/서울아산병원)  
여○진(황문근육종/경북대학교병원)  
윤○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임○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최○람(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최○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황○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 KCLF



2013. 3. ~ 2013. 5.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근영 강안희 김가람 김대혁 김명숙 김미선 김민주 김성규 김연진 김영호 김예림 김은영 김정원 김재홍 김형기 김형심 김혜연 김호정 노시후  
류성근 문영훈 문지성 박배영 박소연 박수희 박용호 박인호 박지영 박진섭 박형주 서경아 서현정 송미영 신덕용 신선호 신수진 신천식 신혜순  
안소신 원상희 유혜원 이경민 이도연 이미혜 이상현 이상호 이서경 이선숙 이용식 이윤정 이은균 이인희 이종욱 이학수 임수지 임윤미 장덕진  
정경해 정선미 정에진 정재섭 정재연 정창원 정희경 조은주 조은진 조효인 주조양 최기제 최병철 최영숙 최유리 최해기 최현진 하수명 한재선  
홍윤미

**일시후원**

강영순 강윤희 권성은 김강훈 김루하 김선구 김선형 김정연 김주랑 노은미 라은경 민선원 박동주 박치홍 서원정 신상운 신희상 안만길 염태욱  
오미선 유혜림 이안나 이은경 이재환 이정은 이주희 이지영 임동훈 임춘경 장혜민 정연주 정우영 정호영 조유나 진수화 최선을 추교홍 홍서운  
홍정화 (주)제원월드 KBS사회공헌부 구민지구분송 박은솔 외 1명 세곡중학교1학년3반 쌍둥이엄마 아트앤아띠 오정의오정연 윤이 이슬교육 충남대  
학교입근개그리 임세진이인경 최민상최민성 하나8106078176

**후원물품**

김정민 음료 김지호 음료 엄태현가족 부식류 유혜란 생필품 이재용 음료 장혜령 음료 정수현 음료 허영철 물티슈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생필품, 안마기 익명 공연티켓

**헌혈증 (장)**

권진옥(5) 김서영(42) 김연수(3) 김지성(150) 박소정(12) 배상민(28) 서현정(9) 손민석(65) 신예리(10) 이동원(2) 이민지(10) 이상근(100) 이창현(18)  
익명(7) 임은규(30) 임태현(200) 채성석(7) 홍재석(60) 홍정화(10)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0중대(54) 경상대학교(1,004)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55)  
고양 능곡고등학교(128) 다음 따뜻한세상만들기(50) 덕수고등학교(134) 돼지만화(안준현)(160) 드림팩토리클럽(112) 디시인사이드유아인갤러리(16)  
모두투어(31) 사단법인신용회복위원회(87) 삼성전기 부산사업장(498) 서부제일교회 에스라청년부(70) 신천지 부산교회(250) 양주경찰서 기동10중대(54)  
에덴밸리리조트(100) 영산대학교 해운항만경영학과(34) 원자력소통진흥회(58) 이슬교육(100) 존슨콘트롤즈코리아(16) 중국동방항공 예약발권팀(8)  
충남대학교 입근개그리(96)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2)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31) 한엔터테인먼트(26) 한전KDN(45)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 체 국 : 012989-01-003327  
농 협 : 029-01-176943      우리은행 : 112-04-112571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새마을금고 : 9002-1557-6919-6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KCLF 희망소식

## 롯데카드 후원 협약



롯데카드는 6월 3일, 부산 지역 소아암 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후원은 아이러브부산 카드 사용액의 0.1%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카드 회원들이 직접 기금 사용처를 투표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한전KDN 치료비 전달



한전KDN은 창립 21주년을 기념하여 임직원이 성금과 함께 헌혈증을 모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 새마을금고 후원금 전달



새마을금고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 SI렌터카 후원 협약



SI렌터카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아암 어린이 가발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고, 또한 고객으로부터 헌혈증을 기증받아(헌혈증 제출시, 차량업그레이드) 재단에 전달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 동국제약과 함께 하는 야외체험



동국제약 마데카솔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로 소아암 어린이 '봄나들이'가 4월 27일, 부산 아쿠아리움, 단아도에, 대구 허브힐즈를 시작으로, 5월 4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5월 7일, 아침고요수목원과 딸기체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액센츄어 후원 협약



액센츄어는 어린이날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지원하고 임직원의 급여 일부를 적립하여 매월 치료비로 지원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 (주)효성 언양공장 후원금 전달



(주)효성 언양공장은 2010년부터 회사와 임직원의 매칭그랜트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2013년에도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아름다운 유산후원 '故 박원기 기금'

소아암 치료 중, 하늘나라로 간 박원기 군의 부모님이 재단으로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나서 어른이 되면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원기 군의 뜻을 담아 원기 군의 기일에 뜻깊은 기부를 해주었습니다.

### 하나HSBC생명보험 치료비 전달



하나HSBC생명보험은 건 강한 중신보험 출시 및 하나 행복금융프라자 출범을 기념 하여, 임직원과 시민이 릴레이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린 거리만큼 기금을 적립하는 '사랑의 마라톤'행사 진행을 통해 모인 적립금을 치료비로 기부했습니다.

### 경기가족걷기대회



4월 28일 제23회 경기가족 걷기대회가 동문 1,400여명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이 행사를 통한 모금액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 2013 희망나무심기



지난 4월 4일 화창한 봄날, 소아암 어린이 가족 80여명은 완치의 희망을 담은 나무를 심고 돌아왔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은 푸르게 성장할 나무에 이름도 달아주고 그곳에 장래희망도 적었습니다. 나무와 함께 소아암 어린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한국남동발전(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기금전달

김동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치료비 후원), 하이닥트(쉼터 후원), 야놀자(치료비 후원)

###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2010년부터 정기 간접치료비와 어린이에 대한 선물을 지원해 주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유아인갤러리에서 2013년에도 후원금과 헌혈증을 모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 비스트 손동은 군의 팬인 '슈퍼비주얼'님께서 쉼터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후원에 이어 손동은군의 생일을 맞아 미술치료 전시회 대관료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2PM 이준호 팬클럽 'Nuneogun(누너건)'에서는 이준호 군의 생일을 맞아 제작한 미니포토북 수금액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틴탑 엘조 팬사이트 '허니플로우, 우리꽃닷컴'에서는 틴탑 앨범 217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VIXX 팬사이트 'RABEAN U, KEN YOU SMILE'에서는 VIXX 앨범 120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아이유 팬카페 유애나 '달빛마차'님이 아이유의 생일을 맞아 헌혈증 100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소아암 어린이 항균키트 '호호상자'



소아암 어린이 가족 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소아암 어린이 항균키트 '호호상자'가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호호상자가 소아암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치료를 받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미래에셋생명보험(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13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



2013년 가족관계강화지원사업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 활동이 5월부터 10월 까지 6개월 간 진행됩니다. 선정된 40가족 모두 치료기간의 힘들을 잠시나마 잊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간의 힘들을 잠시나마 잊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2013 해피휠런 체력증진 지원**



장기간 치료로 저하된 소아암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50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이 선정되어 자전거를 지원받았습니다.

정되어 자전거를 지원받았습니다.

\* 본 사업은 스포츠토토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제3회 사별가족 프로그램 High Five!**



4월 20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소아암 어린이 사별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비 때문에 더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었고, 비 때문에 가족나무를 더 싱그럽게 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High Five! 를 외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를 외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용감한아이통장 2탄 발간**



용감한아이통장 2탄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도장을 찍는 대신 예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기업은행 노동조합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2013년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영남지역**

- \* 일시: 2013년 10월 5일(토)~6일(일)
- \* 장소: 경북 경주시
- \* 문의: 대구/ 경북 053)253-7671  
부산/ 경남 051)244-7677

**소아암 완치자 희망장학금**

- \* 내용: 소아암 완치자 대학(원)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300만원
- \* 대상: 대학(원) 재학 중인 소아암 완치자
- \* 신청기간: 2013년 6월 11일(화) ~ 7월 19일(금)
- \* 선정자 발표: 2013년 7월 26일(금)
- \* 문의: 희망미소 소아암센터 02)766-7671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소박한 동행, 세 번째 이야기’ 속으로

제3회 소아암 어린이 가족 미술치료 작품전시회 ‘소박한 동행, 세 번째 이야기’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2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작품 40점이 전시되었으며, 1,65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은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말을 건넸으며, 관람객들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 할참을 서서 미소 짓다, 웃다가, 눈시울 붉히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미술관 안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함께 삶을 생각하고, 배우고, 소통하였습니다.



### 도움주신 고마운 분들

강성원	김종래	노우진	박정현	안대승	오정연	이예나	정상원	최혜숙	존
김건우	김주연	델로스	박지선	양우신	오정의	이은경	정윤희	하유미	집시
김미리	김하나	박대성	박지원	양지연	유다영	이의현	정은지	하정연	캐스퍼님
김이란	김현민	박미주	박진명	여준영	유승민	이현아	최민상	한기옥	김강훈 가족
김 옥	남기원	박보라	백지혜	오선명	이수진	임남수	최민성	황미선	비스트 손동운
김은숙	노대성	박소연	서수희	오영미	이승우	정문숙	최은주	황인철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2006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의 미술치료를 지원해 오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명록 이예요. 자유롭게 큰 남겨주세요~

여기 와서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어요"가 가장 강명개게 남았습니다.  
저도 혹은 물론 다른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당신이하는 말로  
차이를 받았네요. 바른 삶이 수포가 된 구절이네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존경스럽고 대단하네요.  
일산 현산중학교 2-1 강병훈.

비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이명화라는 느낌입니다.  
강아지입니다.

신나는 동행  
전서체 잘 보이네요.  
우리 아들 친구들이 모두 모두  
건강행복하길 그날까지  
하 이 땅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참고 치로 열심히 해서  
예쁜 친구로 뚝뚝 자라구경  
기운 많이 해 줄게요  
사랑합니다 :))  
2013. 5. 25  
우천애사은 엄마

사랑으로 키기훈겨 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돼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



이해린이의 웃는 모습  
선생님 덕분입니다. ♡



#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전문지원센터 건립을 후원해주세요!

ARS 한통화 2,000원  
060-700-0100

후원 문의  
02-766-7671  
[www.naum.or.kr](http://www.naum.or.kr)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의열매  
새로운 시작에 희망을요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인설빌딩 4층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www.kclcf.org](http://www.kclcf.org)  [cancer@kclcf.org](mailto:cancer@kclcf.org)